**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인권: 유엔 전문가 정보 수집 임무를 띄고 방한**

제네바/서울 (2017년 7월 14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2016년 11월 일본과 대한민국에 방문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취임한 시점에서 이번 방한은 새 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정책에 대해 듣고, 근래에 탈북한 이들을 포함하여 여러 출처로부터 직접 인권 상황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근래 역내 적대감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관심도 더해지는 상황에서 방한하게 되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권 침해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화를 추진할 때 인권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관련 정부에 이러한 중대한 원칙을 상기하는 것도 특별보고관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5일 간의 방한 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대표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방한을 마무리하는 7월 21일 서울에서 (현지 시간 기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출입은 언론관계자로만 제한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내용 및 권고를 2017년 10월 유엔 총회 제출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https://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https://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https://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페이지:*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영어 문의는 Tarek Cheniti**(+82 2 725 3522/* [*tcheniti@ohchr.org*](mailto:tcheniti@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안윤교*** *(+82 2 725 3523 /* [*yahn@ohchr.org*](mailto:yahn@ohchr.org)*)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비어 셀라야(Xabier Celaya)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mailto:xcelaya@ohchr.org))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시나요? **다른 이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스탠드업**

**(STAND UP)” 목소리를 내주세요.**  스탠드업(#Standup4humanrights) 웹사이트(<http://www.standup4humanrights.org>)에 방문해주세요.